



구정목표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

발행인 | 중구청장 김홍섭 편집 | 문화공보실
주 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00(관동1가 9)
전 화 | 760-7122 팩 스 | 760-7129 월 간 | 비매품(통권 33호)



구마크



꽃 철쭉



새 갈매기



나무 해송

새해에는 소망 들어주소서

불길이 타오른다.
2003년의 아쉬움을 활활 떠나보낸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경제 꽃피우게 하소서
우리 중구 번영하게 하소서

불꽃이 스러지고,
갑신년의 붉은 태양이 솟아 오른다.
그 태양처럼 우리 중구민들로 뜨겁게 타오르리라.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시책

-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실현
- 봉사과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
-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조성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

주요기사 안

- | | |
|----------------------------------|---------------------------------|
| • 2004년 김홍섭중구청장 신년사 2 | • 우리동네이야기 - 연안동 7 |
| • 테마거리 - 북성동 밴댕이 회거리 3 | • 테마여행 - 송도해상눈썰매장 8 |
|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4 | • 맛집 - 논두렁 발두렁 8 |
| • 인천항, 외항시대 닦을린다 5 | • 이달의 영어·중국어·일어 회화표현 10 |
| • 신임 이광목 부구청장 인터뷰 6 | • 생활속의 수필 15 |

2004년 김홍섭 중구청장 신년사

2004년 영광스런 중구시대를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존경하는 9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오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정 운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을 구정 목표로 하여 5대 역점시책 추진에 구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10년째를 맞이하면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면서도 구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는 만족을 넘어 감동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기대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과 여가선용의 중심 무대로 자리잡도록 하겠으며 동별 순회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와 인터넷을 통한 주민 의견과 여러 지역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자원봉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보람과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저소득 계층의 주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One-Stop 민원발급 통합창구 설치와 행정 전산장비를 최적화 하여 안방 민원처리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둘째, 봉사와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자활 능력이 있는 구민에게는 자활 공공근로, 전세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쁨과 보람된 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과 건전한 보육풍토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미혼모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미혼모 전용시설을 건립 할 것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를 포함한 전동의 종합문화복지관을 조기 착공하고 통상적인 보건사업에도 정성을 다해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한 환경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항만과 연안권을 중심으로 적지않은 공해유발 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서해안 및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으로 화물차량의 운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지역여건과 자치단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 관광중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연안권 및 남항부두권 환경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과거 70

년대 고도 성장기의 산물인 공해 유발업체에 대한 이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공 청소차 추가 투입과 신 기술의 공해단속 장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푸른마을 습터조성과 친수공간 장미아치 설치, 공원 시설물 정비, 수목식재, 가로변 녹지대 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녹색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3개소의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구 도심권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상 최대의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경제는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그동안 우리구가 추진하였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도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을 대형 할인점과 경쟁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동인천과 연안권 지역도 지중화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동인천 권역은 금년 상반기에 개관될 학생 교육문화 회관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여시장의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의 재건축 사업도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큰 전환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지역에 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홍보판과 아치등을 설치하고 차별화된 홍보기법과 내실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본격적인 관광중구 알리기에 나서겠습니다.

다섯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며 인천 역사의 태동입니다. 곳곳에 근대 문화유적이 있고 공항과 항만, 도시와 농촌 등 다른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특구에 걸맞는 품격있는 관광지 재정비 및 관광상품 개발로 볼거리가 풍성하고 추억을 간직할수 있는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차이나 타운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차이나타운내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하고 중국 사대기 벽화제작, 공연시설과 환전소, 전시시설을 갖춘 문화관광 정보센터를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과 동네 체육시설 보수,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우리 구민의 숙원인 구민운동장 확보 방안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생활체육진흥과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땀흘려 이룩한 관광 인프라를 통해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 원년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밝은 미래와 영광스런 중구 시대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십시다.

다시한번 구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 600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갑신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 1. 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테마거리

북성동 밴댕이 회거리

고소하고 싱싱한 밴댕이에 막걸리 한잔

‘수원집’ 비롯, 수십년간 서민에게 친근한 선술집으로 자리

인천의 대표적 음식은 ‘회’이다. 그럼, ‘회’ 중에서도 최고의회는 무엇일까. 도미, 광어, 우럭을 쪼을 사람도 많겠지만, 많은 인천사람들은 밴댕이에게 엄지손락을 치켜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밴댕이가 이렇듯 인천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소한 맛도 맛있지만, 아마도 하인천역 맞은 편에서 수십년간 서민들에게 밴댕이를 내놓은 ‘밴댕이 회 거리’(북성동 2가 11번지 일대)의 밴댕이 집들이 큰 몫을 했을 거라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공원에서 화교학교 뒷문을 끼고 하인천 쪽으로 내려서는 가파른 언덕길을 타고 바로 그 ‘밴댕이 집’들이 있다.

이 곳에는 35년간 밴댕이를 팔고 있는 ‘수원집’을 비롯해 ‘원조밴댕이’ ‘서산집’ ‘터줏골밴댕이’ ‘도운식당’ ‘이화식당’ ‘실비포장집’ ‘진고개집’ ‘밴댕이포장마차’ 생막걸리 빵코네 등 10개의 밴댕이 집이 싱싱한 밴댕이 회를 썰어낸다. 이 곳에는 쪼동쪼동 쪼 밴댕이 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쪼듯추나 마늘을 곁들여 먹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눈이 날리던 지난 12일, 이 곳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수원집’에 들어서자 두 세 명이 밴댕이를 가로로 빼빼 썰은 세꼬시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이 집은 빼까지 오독 오독 씹히는 세꼬시로 썰어

줘 맛이 그만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 맛은 편에 있던 사람이 “몇 천원만 있으면 한 접시 먹을 수 있으니 부담이 없지요”라고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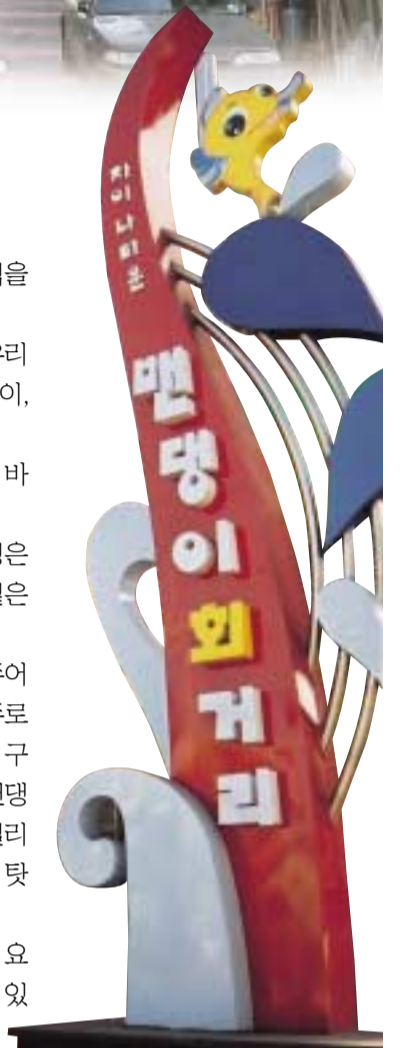
수원집 주인 신태희(63) 씨는 “60대말에는 번듯한 술집보다 우리 선술집이 더 재미있었어요. 지게꾼, 마차꾼, 부두노동자, 월급쟁이, 가난한 문인·화가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의 말처럼 이 곳은 지금도 서민들의 천국이다. 스텐이리스로 바뀌었지만 허름한 선술집의 풍경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수원집 뿐 만 아니라 나머지 밴댕이 회집들도 이런 친근한 풍경은 마찬가지다. 밴댕이 회는 물론, 구이, 준치, 병어, 꼴뚜기, 굴 등 ‘겉은 마이네리티지만 맛은 메이저리티’인 생선들은 몽땅 갖추고 있다.

밴댕이는 강화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로 이어지는 앞바다가 주어장이다. 양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자연산인데 옛날에는 주로 젓갈을 담가 먹었다. 회로 먹거나 양념을 넣어 무쳐 먹기도 하며 구워먹는 맛도 매우 독특하다. 회로 먹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듯이 밴댕이는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제 성질에 못이겨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힘들었던 탓이다.

알을 낳는 시기인 4월에서 6월 사이에 잡힌 놈이 가장 맛있지만 요즘엔 냉장기술이 워낙 발달해 사시사철 싱싱한 밴댕이를 맛볼 수 있다.



중 구 의 옛 풍 물

러시아 영사관



1903년에 건립한 러시아 인천 영사관이다. 시베리아 철도에서 하르빈을 거쳐 대련(大連)에 이르는 만주 철도를 주관하는 동청철도회사(東淸鐵道會社)가 우리 나라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인천에 기선 항로를 개설했다. 그래서 거류민도 없는 인천에 영사관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일본과 청국은 각기 정치 암약과 경제 활동이 대단했으나 영사관의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빈약했다. 영국이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에 대리 전쟁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곧 러일전쟁으로 이 건물은 전리품이 되고 총독 정치 이후 체신국 인천해사출장소가 사용했다. 수복 후에는 해군 인천경비사령부가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은 가로변에 상가 빌딩이 서 있고 내부 광장은 올림픽 골프 연습장이 성업중이다.

한 세기 사이에 세상은 돌고 돌아 우리 나라와 러시아가 또 다시 수교를 트게 되고 보니 도시의 개발 사업이 가져 오는 공과를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하는 그림이기도 하다.

옛 인천검역소 건물 자리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조화로운 계획수립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투자효율성 제고키로



중구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청사진이 나왔다.

중구는 국가계획(재정)과 지방계획(재정)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며,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의 제도화’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우선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 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심사를 병행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서는 계획기능과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이뤄졌을 때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을 하고 책임도 강화될 것이라고 중구는 보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2003년을 기본연도로 하며 2004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며 2005년~2006년은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사업대상은 회계별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분야에 걸쳐 이뤄지며, 사업별로는 자체신규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전액국고 투자사업,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 투·융자사업이 대상이다.

1단계는 ‘현황과악-재정분석-지표설정’으로 진행되며 2단계는 ‘세입·세출추계-투자사업 선정-자원배분 조정’ 순으로 시행된다. 그렇지만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 및 자원배분,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 하는 등 융통성있게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립단계는 기본구상(지역발전계획)-기본계획수립(장·단기간 달성목표 및 기본지표설정)-실시계획수립(5년 단위 세입·세출 추계 및 달성목표 기본지표 설정)-계획확정(지방재정계획위원회 자문확정, 시 및 구의회 보고)-연동화계획(여건변동을 계획에 수정, 보완)으로 진행된다.

중구는 계획수립의 원칙을 국가정책목표와 연계강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

효성 확보,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 주요사업 투자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의 적정수립,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으로 세웠다.

‘국가정책목표와 연계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각종 발전계획, 국토개발계획 등 전국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는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해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고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제고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원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해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구구 및 경영행정 체제강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자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보고 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 강화’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시행효과를 재검토해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채 발행의 적정수립’은 지방채발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재정운영을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투자계획 수립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중기계획상의 지방채발행계획에 반영조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고보조사업 계획수립’ 부문은 국고보조금제도는 관행적이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로 반영해 계획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시 재정과 원활히 협력하며 구 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계획재정구현과 장기적 재정 발전기반 구축,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배분 최적화, 재정운용의 공개제도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항, 외항시대 닦아올린다

전용컨테이너터미널조성, 외항개발 등 본격적 확장계획

국내 최대의 수출입 생산기지를 배후에 두었으면서도 중심항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인천항이 그동안 숙원이었던 외항시대를 활짝 열어젖힌다.

남항에는 24시간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전용 컨테이너터미널이 조성되며 외항개발이 본격화 된다.

이에따라 그 동안 인천 앞바다에 도착하고서도 갑문 입출항 순서에 맞춰 오랜 시간 차레를 기다려야 했던, 가장 골치아팠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인천 남항 컨테이너터미널 시대 개막

올해 남항에 문을 여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싱가포르 PSA, (주)선광, 영진공사(주)가 건설, 운영하는 각 부두 1개씩 모두 3선석. 영진이 회사설립 45주년인 오는 4월15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PSA의 인천남항컨테이너터미널(ICT) 7월, 선광 10월 순이다. 규모는 ICT가 4만t급으로 가장 크고 선광 1만8천t급, 영진 1만t급이다.

이렇게 되면 남항에는 지난 98년 개장한 대한통운의 5천t급 2선석까지 더해 모두 5개의 부두가 운영된다.

관련업계는 남항 신규부두들이 운영에 들어가면 연간 50만TEU의 컨테이너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인천항 내항에서 처리한 물량(81만TEU)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와 관련, 올해 100만TEU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100만TEU는 모선이 기항할 수 있는 기본 조건. 따라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TEU를 넘는다는 것은 앞으로 인천이 지향하는 동북아 물류중심항을 향한 초석이기도 하다.

항만전문가들은 “100만TEU를 넘어서면 다음 200만TEU로 가는 것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며 그 시기를 2005년으로 전망했다.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시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 것은 사실 인천항이었다. 지난 1974년 (주)한진과 대한통운(주)이 현 인천항 4부두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건설, 준공하면서 국내 첫 컨테이너터미널 시대를 연 것.

인천항만하역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4부두 개장 초기만 해도 APL, 양밍, 에버그린 등 세계 유수의 선사들이 항로를 개설하고 미주와 유럽 등 세계 각지로 화물을 오갔다. 당시 인천항은 국내에서 유럽으로 가는 시발점 이었고 부산항은 미국행 화물의 중심이었던 셈이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컨테이너터미널이 개장하자마자 바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인천항이 막대한 물동량 생산지를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부두운영사로 꼽히는 PSA 터미널 개장이 기대감 증폭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업계사이에서는 PSA가 세계 유수의 라인을 이미 유치해 놓고 있다는 입소문이 파다하다. 회사 이름만으로도 대형 선사들을 인천항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ICT 관계자들도 “이 곳을 통해 앞으로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이 처리될 것”이라며 항로개설에 강

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PSA의 등장은 인근에 개장하는 선광이나 영진부두의 운영 수준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선광, 영진은 모두 인천 내항 컨테이너크레인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대형크레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장비 발주를 마친 이들 회사는 “PSA 운영 능력에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야되지 않겠냐”며 외국의 선진 컨테이너터미널에나 볼 수 있는 포스트파나막스급 크레인을 주문했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선박 1척당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으로만 5시간을 허비하면서 내항 2개 부두에서 연간 처리하는 컨테이너가 22만TEU 정도”라며 “대기시간이 필요없고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한 외항터미널에서는 연간 50만TEU 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본격화되는 외항 개발

북항개발사업 전체 18개 선석 가운데 11개 선석이 지난해 착공됐다. 잡화부두 3선석과 자동차 부두 2선

석은 올해 착공된다. 남항은 선광이 지난해 5월 착공한 나머지 1만8천t급 컨테이너 부두 1선석 개발을 진행 중이다.

북항은 현재 18개 선석 가운데 16개 부두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1년이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INI스틸과 동국제강의 5만t급 3선석의 철재부두가 오는 2006년 말 준공예정이며 정부가 개발하는 목재부두(2만t급X2)와 유진자원(주) 잡화부두(2만tX1) 3선석 2007년, 동부건설의 다목적부두 5만t급 3선석 2008년, (주)한진중공업 목재·잡화부두 5만t급 2선석이 오는 2009년 각각 준공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인천항의 미래비전인 송도신항(인천남외항) 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오는 6월 끝나면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올해 인천항은 남항 컨테이너터미널 개장과 북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송도신항 개발사업의 본격화 등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Adieu 2003, 반갑다 2004년”

‘월미해지미’ ‘제야의 밤 러닝’ 페스티벌 성료 지난해 31일~새해 1일 수천여명 참석해 유쾌한 새해맞이

‘아듀~ 2003년, 반갑다! 2004년’

2003년 마지막 밤에 시작해 새해 첫 새벽까지 이어진 ‘2003년 월미 해지미 페스티벌’과 ‘제야의 밤 러닝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달 31일에서 1월 1일 새벽,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월미공원에서 릴레이로 펼쳐진 ‘해지미 페스티벌’과 ‘제야의 밤 러닝 페스티벌’엔 2천여명의 시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국악 한 마당, 브라질 전통 춤, 통기타 공연 등으로 월미도를 찾은 시민들에게 흥겨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선상에서 쏜 올린 1,000여발의 불꽃이 불을 뿜은 ‘2003년 아듀! 불꽃놀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에서는 연신 탄성소리가 흘러 나왔으며, 2003년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아쉬움과 시원함이 겹쳐져 있었다.

이날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김모(43)씨는 “연말이면 항상 인천을 벗어났는데 인천에서 해지미 행사가 마련돼 참 좋았다”며 “이 행사가 인천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10시께 월미공원에 마련된 ‘2003년 제야의 밤 페스티벌’로 자리를 옮긴 시민들은 막걸리 파티, 캠프 파이어, 소원지 태우기, 길놀이 풍물공연 등에 참여하며 새해를 맞을 준비를 했다. 시민들은 ‘애인 만들기’, ‘승진’, ‘결혼’, ‘무병장수’, ‘취직’, ‘부자’ 등의 2004년 한 해 소망을 적어 놓은 소원지를



뜨거운 모닥불과 함께 불사르며 서로의 축복을 기원했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중구의 단편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인천시를 대표하는 연말 행사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interview

신 임 이 광 목 부 구 청 장



“관광도시 중구에 주력할 터”

매 사 에 치 밀 ,
깔 끔 한 일 처 리 정 평

“세계 속의 국제 관광 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목(58) 신임 중구청 부구청장은 “중구는 지난 2001년 월미관광특구 지정 이후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인천권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 시책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며 “전 공직자가 합심해 최고의 관광특구를 만들어가자”고 취임소감을 대신했다.

이 부구청장은 “김홍섭 청장님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구민 존중 행정, 신뢰 행정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1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남동구 기획감사실장, 남동구 총무과장, 남동공단출장소장, 시 감사관실 감사1담당, 시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다.

30여년간 공직에 몸바쳐온 이 부구청장은 감사 및 기획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행정관료로 매사에 치밀하고 깔끔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스키러이며 스트레스 날렸어요”

생활어려운 청소년 27명 13일,
스키장에서 즐거운 한때



중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데도 곳곳하게 살아가고 있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일일스키캠프’를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보광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개최했다.

중구 관내 중·고등학생 27명을 초청한 ‘청소년 일일스키캠프’에서 청소년들은 스키강습과 함께 직접 타 보는 시간을 가지며 유쾌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에 중구청에 모여 10시께 보광 휘닉스파크 스키장에 도착, 전문강사로부터 안전교육과 스키강습을 받으며 이뤄졌다.

이어 점심식사 뒤 자유 스키 체험활동이 실시됐으며 오후 4시30분께 스키복과 스키를 반납하고 오후 8시 구청 광장에 도착해 해산했다.

행사 관계자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전한 여가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주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이야기

연안동

‘인천속의 인천’ ‘환황해권 거점’

종합어시장, 남항부두, 해수탕, 회센터 등 가장 인천다운 색깔 지녀



종합 어시장, 남항 부두, 해수탕, 밴딩이 회무침 거리, 국제 여객 터미널, 국제 연안 여객터미널...

연안동이 관광 특구로 지정된 것은 ‘가장 인천다운 색깔’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연안동은 흔히 ‘환 황해권의 관문이자 거점지역’ 혹은 ‘산업중심지이자 해양관광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굳이 여러 관광시설과 먹거리, 교통 시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연안부두’란 유행가가 나왔을 정도로 연안동은 인천의 큰 이미지를 형성하는 개성이 강한 동네이다.

종합어시장에선 파닥파닥 뛰는 활어처럼 삶의 생동감이 넘쳐난다. 수백 여 상가가 분주히 움직이는 이곳은 이름처럼 물고기만 파는 것은 아니다. 의류만 빼고 없을 정도로 활어전문시장과 재래시장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보통 새벽 4시면 문을 열어 밤 9시나 돼야 철시하며 싱싱한 활어를 엄청나게 싼 값으로 살 수 있으므로 먼 곳에서도 많이 찾는 곳이다.

남항부두는 손맛을 즐기려는 강태공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 곳에서는 덕적도를 비롯,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는 곳이다.

그들은 온 종일 바다여행을 한 뒤 해수탕에서 몸을 담궈 피로를 푼다. 뜨거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쫄쫄 얼었던 추위는 물론 속에 쌓여던 스트레스까지 말끔히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먹는 해물탕이나 쫄쫄쫄쫄한 회, 밴딩

이 회무침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서 특히 연안동에서만 접할 수 있는 수십 년 전통의 밴딩이 회무침 집들은 온갖 야채와 참기름, 양념장을 버무린 매콤 새콤 달콤한 밴딩이 회무침으로 점심시간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이 같은 연안동의 풍물을 그냥 지나치진 않는다. 외국인들은 직접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고 인천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이 곳을 찾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특히 호텔급 모텔도 갖추고 있어 연안동은 인천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 중이다.

그러나 연안동에도 골칫거리는 있다. 가장 큰 현안은 교통문제이다. 과거 1백주년 기념탑이 있던 곳에서 연안동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오직 한 곳 뿐이다. 연안동에는 원목, 석탄부두, 야적장 등이 산재한다. 이 때문에 추레라, 덤프트럭 등이 많이 오가며 이는 곧바로 교통병목현상을 유발한다. 연안동에서 1백주년 기념탑이 있던 자리까지 불과 2Km 정도이지만 30분씩 걸리는 때도 있다. 이와 함께 먼지,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도 도사리고 있어 우회도로나 고가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한 주민은 “도로는 없고 대형 트럭은 많이 들어와 주민들이 매우 힘들어 한다”며 “교통여건이 개선돼야 진정한 관광특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옥 연안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주민목소리 적극 알립니다

매 달 정기모임 주민의견수렴 등에 전달

인터넷 방, 비디오 방, 에어로빅 교실도 운영



“주민들과 동사무소의 가교 역할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정상옥(60) 연안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은 연안동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민과 관의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한다.

연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 2층에 인터넷 방, 다목적 교실, 비디오 방, 에어로빅 교실을 갖추고 주민들로 하여

금 맘껏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국 어반(주 2회), 에어로빅(주 3회), 주부노래 교실(주 2회)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 중이다.

“매달 셋째 주 25명의 위원과 고문, 자문위원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합니다. 행정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은 저희들이 다

논의해 해결합니다.”

도로 파손, 하수도 맨홀 정비,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자치위가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해만 해도 15곳의 파손된 도로를 새로 단장했고, 10곳의 맨홀을 정비했으며 28건의 무단방치물과 방치차량을 치웠다.

“올해는 통·반장 직능단체 등을 통한 불편사항을 더 밀접하게 수렴하고 이를 위해 주민 방문, 전화 등을 통한 불편사항도 수렴할 생각입니다.”

정 위원장은 주민자치위 회의와는 별개로 정기적인 관내 출장을 통해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활짝 웃는다.

“석탄부두, LPG가스, 정화조 업체 등

연안동에 혐오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는 “연안동이 가장 인천다운 곳이면서도 혐오시설 때문에 빛을 못보고 있다”며 “교통난 해결을 위한 우회도로, 고가·지하 차도 개설과 혐오시설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주민자치위가 밝고 깨끗하며 볼거리가 넘치는 관광 특구로 가꾸는 데 가장 앞 줄에 서겠습니다.”

무거운 현안을 얘기하던 정 위원장은 주민자치위가 조금 더 뛰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표정을 지었다.

송도해상눈썰매장

푸른바닷바람 가르며 설원을 질주한다

인천 최고 눈썰매장,
가족유아위한 눈광장서 눈싸움도하고 눈사람도 만들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설원을 질주한다.’

따뜻한 날씨 탓에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지만 절기상으로 아직 한겨울이다. 겨울 하면 생각나는 건? 그렇지 바로 ‘하얀 눈’이다. 겨울이 오면 누구나 하얀 눈을 꿈꾼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드는 꿈을, 연인들은 사랑의 눈싸움을 혹은 영화 러브스토리의 한 장면을 떠올리리라.

지금 눈을 만나고 싶은가. 그럼 ‘송도 해상 눈썰매장’을 찾으면 된다.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도 ‘송도 해상 눈썰매장’에는 적어도 오는 2월까지 눈이 쌓여 있을 예정이다.

이 곳에는 150m에 이르는 인천 최대의 슬로프장과 유아·가족용 슬러프가 마련돼 있다. 슬로프를 타고 내려 오는 동안 사람들은 마치 ‘푸른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환상을 맛본다. 입장료(어린이 5천원, 청소년 7천원, 어른 8천원, 3살 미만은 무료)만 내고 들어가면 개장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 종일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일반 슬로프와 가족·유아용 슬로프 옆에는 온통 하얀 눈의 광장이 펼쳐져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광장으로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벌인다.

눈썰매를 타다가 배가 고프거나 지치면 따뜻한 온기가 자욱한 스넥코너를 찾으면 된다. 자장면, 우동, 돈가스, 꼬치우동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모두 갖추고 있어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눈썰매장을 찾는 사람들에게겐 유원지에 있는 놀이기구를 할인해서 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놀이랜드는 눈썰매장 만큼이나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인기코스이다. 부모와 함께 탈 수 있는 목마에서부터 뮤직익스프레스, 다카타 범퍼카 등 놀이시설이 즐비하다.

송도 유원지 한 가운데는 거대한 모래밭이 펼쳐져 있다. 지금은 겨울철이어서 썰렁하지만 여름이면 1만여 명이 동시에 텐트를 칠 수 있는 텐트촌으로 변한다.

송도 유원지는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약간 차갑긴 하지만 겨울바람을 맞으며 걸어보는 것도 낭만적인 일이다.

송도유원지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휴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곳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월 미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유원지로 개발한 곳이다. 송도유원지에서 눈썰매를 탄 뒤 유원지를 나오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바로 음식의 세계이다.

송도에는 일식집은 기본이고 정통 이태리 요리, 프랑스 요리, 한정식집, 차이나 레스토랑 등 수백 여개의 음식점이 즐비하다.

송도 입구에 있는 버섯요리를 만드는 ‘서만두골 버섯촌’을 비롯해 바닷가재구이, 제주통돼지구이, 해물 샤브샤브, 정통 북경요리, 물탕병이 등등 미식가들을 위한 요리로 풍성하다.

가족끼리 눈썰매를 신나게 타고 밖으로 나와 일몰을 보며 단란하게 저녁을 먹는 만큼 행복한 광경이 또 있을까.

송주는 ‘송도해상 눈썰매장’ 팀장은 “겨울 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재충전 하는 데 눈위를 신나게 달리는 썰매만큼 신나는 놀이는 찾기 어렵다”며 “완만한 가족·유아 슬로프와 13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 833-6655.



맛 집 논두렁 발두렁

쭈꾸미와 삼겹살이 고추장서 ‘한판’

고추장주물럭, 우렁이쌈밥, 상황버섯 칼국수

영양도 맛도 ‘최고’

한식조리사자격증 가진 김성옥사장,
기사식당서 수년간 요리 노하우



두툽한 생삼겹살과 포동포동한 쭈꾸미가 새빨간 고추장 속에서 춤을 추며 지글지글 끓어 오른다. 새콤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입 안에서는 침이 꿀꺽 꿀꺽 넘어간다.

용동 먹거리 골목 입구에 자리한 ‘논두렁 발두렁’(대표·김성옥)의 ‘고추장 쭈꾸미 돼지고기 주물럭’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갇은 양념을 한 걸죽한 고추장에 대파와 양파, 풋고추를 송송 썰어 넣고 끓이는 모양이 그렇게 맛갈스러워 보일 수가 없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했던가. 이 주물럭의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란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 매콤 달콤, 고소한 맛에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양이 적은 사람이라도 밥 두 공기 정도는 뚝딱 해치워 버리도록 만든다. 물론 술 안주에는 더 할 나위 없이 제 격이다.

이 집이 자랑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메뉴는 ‘우렁이 된장 쌈밥’과 ‘상황버섯 해물 칼국수’.

우렁이를 넣은 쌈장을 넣어 싸 먹는 쌈밥은 쫄깃한 우렁이의 맛과 구수한 양념장, 상추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입맛을 돋군다.

상황버섯은 Kg에 1백만원씩 하는 송이버섯 보다는도 귀한 버섯. ‘논두렁 발두렁’에서는 이 버섯 엑기스로 칼국수를 반죽하고 국물을 우려낸 ‘해물 칼국수’를 만든다. 상황버섯 해물 칼국수에는 홍합, 통족, 갑오징어, 새우도 들어가 고단위 영양식품임은 물론, 해장에도 그만이다.

가격도 주물럭은 2인 기준 1만5천원, 쌈밥과 칼국수는 각각 5천원으로 부담이 없다. 아니, 맛을 보면 오히려 너무 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나다.

상황버섯을 비롯해 이 집에서 쓰는 재료는 부산, 당진에서 공수해온 모두 국산이다. 굳이 중국산의 서너 배에 이르는 국산을 쓰는 이유는 중국산은 국산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주인 김성옥씨는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이 찾는 기사식당에서 수년 간 요리를 만들어 온 베테랑 요리사도 주방장도 겸하고 있다.

김씨는 “비싼 재료를 쓰다 보니 사실 남는 게 없지만 일단 영양과 맛이 중요하므로 재료는 아끼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맛을 본 분들이 모두 단골이 되고 있어 앞으로 조금은 남는 게 있을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 논두렁 발두렁
☎ 766-4814



갑신년 새해 신년인사회

우리구는 지난 9일 구청회의실에서 중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유관기관 사회·직능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신년 새해 새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된 권역별 기반시설 위에 차이나타운 등 역점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되자고 다짐했다.

갑신년 2004년 시무식 개최

우리구는 지난 2일 구청회의실에서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의 힘찬 도약을 위한 2004년 시무식을 갖고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구민에게 2004년 메시지를 전했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종합평가대회” 개최

새마을운동 인천중구지회(지회장 공상오)는 지난 23일 구청회의실에서 중구청장, 구의회위원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한해 동안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산하 각 분회에서 추진한 2003년도 각종 사업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대회를 개최했다.

포토구경



연말연시 저소득주민 및 소외계층 위문

중구청장은 지난해 22일부터 4일간 구청회의실에서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내 저소득 및 소외계층 60가구를 방문, 평소 느끼지 못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민주평통중구협의회 2003년 활동평가회

민주평통중구협의회(회장 전 영태)는 지난해 22일 구청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초청인사 등 37명이 참석, 2003년 협의회 활동평가회를 가졌다.



연말연시 청소년보호 범국민 캠페인 실시

우리구는 지난해 23일 관내 신포동소재 답동소공원에서 부구청장, 구의회의원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탈선방지 및 학교주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연말연시 청소년보호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2004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우리구는 지난 7일 구청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7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대체의학 **

칼슘과 단백질이 많은 참깨

참깨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100g속에 1,100㎍이 상 들어 있다. 포식의 시대라고 하는 현대에도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은 표준보다 적는데 참깨같은 자연식품을 소홀히 해온 탓이다. 또 참깨에는 메치오닌, 리신 등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기타 아미노산의 양은 고기에 들어 있는 것과 같다. 메치오닌, 리신 등은 우량 단백질이라고 하는 콩보다 2배나 들어 있다. 지방은 레시틴을 많이 함유하며 그러므로 참깨를 상용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비타민 B1·B2도 듬뿍 들어 있다. 비타민 B1은 전분, 당분을 소화 흡수시키며 신진대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타민이다. 충분하게 섭취하면 피로하지 않고, 몸도 가볍게 되어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산소가 전신으로 공급되어 머리가 상쾌해지고 마음도 맑아진다. 검은 참깨는 세포를 젊게하고 비타민 E의 보고이다. 비타민E는 생명과 깊이 연관된 비타민이다. 임신, 출산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포에 활력을 주므로 회춘과 미용에 좋다. 또한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며 습진이나 옷과 같은 피부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또한 백발이 검어졌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또 비타민A의 기능을 돕고 지방의 산화방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의 기능을 돕고 전신에 활력을 준다.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해독작용을 돕는 효용이 있다. 간장에 좋은 것이라면 전신에도 좋다.

■머리를 좋게 하는 식품의 왕

참깨는 건강식이라고 하며 칼슘과 비타민 외에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율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세포에 활력을 주며 게다가 알칼리성으로 혈액을 정화해 준다. 이 감마오리자놀이 칼슘과 비타민E와 함께 두뇌의 기능을 도와 결과적으로 뇌를 좋게 한다. 인스턴트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현대인에게는 영양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피가 정화되지 않고 머리는 산소 부족으로 회전이 나빠지며 신경이 예민해져 감정적을 된다. 또 참깨는 독소를 내보내 주는데, 간장을 강화하고 해독작용이 있는 이노시톨, 코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변통이 좋아지므로 변비약으로 된다. 그외에 화상, 부종, 베인 상처, 항문 열상 등 외용에 좋은 참깨기름을 바르면 잘 낫는다. 참깨를 볶아서 소금간을 해서 매일 밥에 얹어 먹으면 좋고, 무침과 요리에, 또 아이들 간식 속에 넣는 재료로 여러 가지에 이용하면 좋다. 특히 변비에 걸리기 쉬운 임신기간 중에는 참깨를 현미밥에 뿌려 먹거나 현미떡을 넣은 단팥죽을 먹으면 효과가 뛰어나다.

- 요독증 : 흰 참깨를 큰 컵 두 배의 물로 달여서 절반 정도가 되었을때 이것을 하루 3회 나누어 마신다.
- 변 비 : 검은 참깨 40g, 호도 살 80g을 함께 찿어 보관해 두고 식전 공복에 한 숟갈씩 물로 먹는다.
- 반신불수 : 참깨 12g, 뽕잎 12g을 가루로 해서 술로 마신다.
- 탈모증 : 검은 참깨를 볶아서 으깨어 알콜을 섞어서 바른다.

■참깨 조리법

참깨를 잘 볶아 거칠게 갈아 으깨서 거기에 자연소금을 볶아 조금 섞고, 싱겁게 간을 해서 눅눅하지 않도록 주둥이가 넓은 병에 넣어둔다. 이것을 현미밥에 듬뿍 뿌려 먹는다. 칼슘과 비타민 부족인 환자는 볶은 참깨를 하루 큰 숟갈로 세 숟갈 이상 잘 씹어 먹으면 좋다.

■자료제공 : 삼원기(자연치유요법 전문가)

이 달 의 수 산 물

김 · 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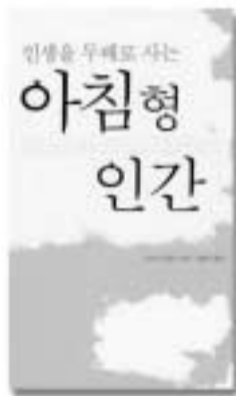
따끈한 쌀밥과 김의 어울림은 김을 즐겨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미이다. 김은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하여 쌀밥의 영양학적 결함을 보충할 수 있으며,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미역은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생산되며 특히 부산, 경북 및 전남지역에서 많이 생산된다. 미네랄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 칼륨, 칼슘, 나트륨 등 무기질이 풍부하며 우리몸의 산성화를 막아준다.



■ 추천 도서 ■ ■ ■ ■ ■

인생을 두배로 사는 아침형인간



책소개 _ 눈은 충혈되어 있고, 이따금 즐기까지 하는 당신. 매일 아침 허겁지겁 출근해서 업무 파악도 못한채 회의에 들어가기 일쑤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의 저자는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는 것. 저자가 상담을 통해 지켜본 실제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야행성 생활의 폐해와 아침형 생활의 효과를 전해준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통한 수면 시간,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 설정 등, 하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3부에서는 전반부의 내용을 토대로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한 100일(14주) 프로젝트를 정리해놓았다. 무리한 계획이나 실행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느리고 자연스러운 변화흐름을 제시한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

이달의 영어회화표현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좋아요

‘So far, so good.’은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뜻이다. Far는 거리와 정도가 멀리 떨어진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You’re carrying a joke too far’라고 하면 ‘도가 지나친 농담을 하고 있군요.’라는 의미가 된다. Cyclical은 cycle(주기)에서 파생된 단어로 주기가 있는이라는 뜻이다.

- A : How’s your new job going?
B : So far, so good. But I’m a little worried about the next few months.
A : Really? I heard business has been pretty good lately.
B : Oh, it has. But our business is extremely cyclical.

- A : 새로 들어간 회사는 어때?
B : 지금까지는 좋아. 그런데 다음 몇 달이 좀 걱정돼
A : 그래? 요즘 경기가 꽤 괜찮아졌다고 들었는데.
B : 응, 그렇긴 해. 하지만 우리 사업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아주 심해

〈More Tips〉

- That should do the job. 그 정도면 돼요.
- The job market is tight.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달의 중국어회화표현

好久不见了! 오랜만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인사 표현입니다.
- 만남 해후...

- A: 好久不见了! (하오 지우 부 쩌엔 레)
오랜만입니다.
最近过得怎么样? (쑤이쨌 쑤어더 전머양?)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最近忙不忙? (쑤이쨌 망 부 망?)
요즘 바쁘십니까?
B: 最近比较忙 (쑤이쨌 비쨌아오 망)
요즘 비교적 바쁩니다.
你呢? (니너?)
당신은요?
A: 我不太忙 (워 부타이 망)
저는 그다지 바쁘지 않습니다.
的工作怎么样? (니더 공쑤어 전머양?)
하시는 일(사업)은 어떻게습니까?
B: 托您的福 挺好. 谢谢. (투오 닌더 푸우,팅하오 씨에씨에)
덕분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More Tips〉

- 最近(쑤이쨌) : 요즘, 최근
- 过(쑤어) : 지나다
- 托您的福(투오닌더푸우) : 당신덕분에
- 挺好(팅하오) : 매우 좋다

이달의 일본어회화표현

ごめんください 실례합니다

본문에서의 ‘ごめんください’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 하는 인사말로 ‘계십니까(どなたかいらっしゃいますか)’와 뜻이 같다. 참고로 ‘ごめんください’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 李 : ごめんください.
실례합니다.
佐藤 李さん, いらっしゃい. どづぞ, お上(あ) がりください.
이진아씨, 어서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李 : それじゃあ, おじゃまします.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佐藤 さあ, どうぞどうぞ.
자, 어서요 어서.
李 : これ, つまらないものですが.
이거 별것 아니지만...
佐藤 わざわざ, すみません.
(뭘 이런 걸 다) 일부러..., 고맙습니다.

〈More Tips〉

- ごめんください: 계세요?, 실례합니다
- 上(あ) がる: (집안으로) 들어오다
- おじゃまします: 실례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 わざわざ: 일부러

『신년 인사』



조영환 의장
(영중동)

2004년을
우리모두
중구 발전의
주역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집시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힘차게 걸어온 재미년 한해를 뒤로하고 대망의 갑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일 마다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지역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 주권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참여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남과 북이 하나가된 대구에서 열린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 축제와 일본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화해 무-드를 조성한 쾌거였습니다.
한편,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파병 문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념간의 갈등을 심화 시켰으며,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계층 간의 갈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아울러, 태풍『매미』는 우리 이웃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대구 지하철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안겨 주었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구는 내부적으로 영종·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 현안사항이 주민과 관계 기관의 대립으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구는 세계 4대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최대의 상업항인 인천항을 성장 동력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 주민 편의의 문화·복지 시설 확충사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시작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구가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보람된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구민을 위한 책임 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신 김 홍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각종 개발공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불편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력해주신 구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은 그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중인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갈수록 증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세계화에 대비한 행정을 준비하고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을 위한 주변 환경이 그 어느 도시 보다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 그리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성장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성공의 결실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중구 발전의 주역이라는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우리구가 동북아의 물류 거점도시,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상호 동반자적 위치에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지역간, 계층간 불신을 해소하고 이완된 사회 기풍이 올바르게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우리 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원 모두는 우리 의정사에 창 의적이고 생산적인 구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신했던 의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가 우리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구민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행정구현, 다함께 잘사는 경제 활성화, 환경 친화적 관광도시 조성,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건설 등 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초석이 될『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하여 지역의 주인으로 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의정 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의정 세미나 등 업무 연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위주의 의회 운영으로 항상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의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저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분명 21세기 인천 발전을 선도할 것이며, 동북아 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마련한 성장의 밑거름이 헛되지 않도록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이 대열에 동참하여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뜻을 함께 해주시고 작은 정성을 모아주신 구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年度 年間 議事日程(案)

기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기 간	주 요 내 용	비 고
2월 11일(1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의회관련조례처리		9월 15일 ~ 9월 18일(4일)	구정에 관한 질문	
3월 23일 ~ 3월 31일(9일)	제1회 추경예산안		10월 12일 ~ 10월 18일(7일)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	
4월 20일 ~ 4월 27일(8일)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		11월 9일 ~ 11월 15일(7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5월 18일 ~ 5월 24일(7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			2005년도 예산안	
5월 28일 ~ 6월 16일(20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실시		11월 25일 ~ 12월 17일(23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차 정례회
	제2회 추경예산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7월 1일 ~ 7월 12일(12일)	2003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	제1차 정례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방청을 원하시는 구민(단체)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의회사무과(032-760-7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장 확인				

❖ 2004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04. 1. 1현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준 : 2004. 1. 1현재
- 납부기간 : 2004. 1. 16 ~ 31
- 납부장소 : 관내 시중은행, 농협, 수협, 축협 및 전국 우체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 : www.giro.or.kr
 - 인터넷 조화납부 기능을 활용하여 고지서상 과세번호 및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한미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www.goodbank.com
 - 계좌이체, 카드납부(한미 VISA카드)
- 문의전화 : 중구청 세무과 구세팀 (☎ 760-7255)

❖ 인플루엔자(독감)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생활 지침

- 최근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조기에 유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유행하고 있지 않으나 유행가능기간동안 국내로 유입되어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년 WHO가 예측한 바이러스 주는 A형 파나마임에 반해 실제 유행바이러스는 A형 푸지엔으로 확인되어 예방접종 효과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또 외출후 귀가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으로 감기의 감염을 훨씬 줄일 수 있다.
- 호흡기성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생활 지침
 - 외출후 귀가시 손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정결유지
 - 유행시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이나 집단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시 마스크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시 손수건이나 화장지로 가리고 하기
 - 열, 콧물, 기침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조기치료
 - 건강생활(규칙적인 운동, 절주, 금연, 적절한 영양섭취 등)유지
 - 독감 백신은 언제 맞아야 하나
 - 독감은 매년 11월부터 유행하고 백신은 접종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므로 9월이나 10월경에 맞는게 좋다.

❖ 국비 신입생 모집

■ 기관별 모집안내

기 관	모집기간	제출서류	입학자격및 대상	문의전화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2. 29까지	응시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1976년 3월 이후 출생자	810-6520~3 www.kccic.ok.kr
홍익디지털디자인 직업전문학교	1. 1부터 선착순 마감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자격제한 없음	515-2222
북인천 전산직업학교	1. 28 ~ 3. 8	직업훈련상담확인서, 반명함판 사진2매, 우체국 통장 사본	고용보험적용 및 미적용 실업자	554-3335

❖ 중구문화원 문화학교생 모집

인천중구문화원은 문화관광부지정 문화학교 평생교육 기관으로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혜로운 삶을 구현 할 수 있는 희망과 행복을 드립니다.

■ 문화학교 과목별 시간표

요일	오전(10:30~12:30)	오후(1:30~3:30)	저녁(6:30~)
월	퀵트	민요,사물놀이	
화	댄스스포츠,하모니카	노래교실	
수	서예,한국무용	기타아·문창창작	
목	영어·사진	사군자	
금	일본어·꽃꽂이	중국어	
토	♣	♣	♣

- 수강기간 : 2004. 2. 14 ~ 11. 30
- 접수일자 : 2004. 1. 5 ~ 1. 30(과목별 30명 선착순 마감)
- 장 소 : 중구 송학동1가 11(자유공원내 / (구)시립박물관)
- 수 강 료 : 무료, 등록비만 본인 부담
- 특 혜 : 문화관광부장관 수료증 수여
- 문의전화 : 인천중구문화원 사무국 (☎ 761-2778~9)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 신청기간 및 납기 : 2004. 1. 16 ~ 1. 31
- 대 상 : 승용차, 경차, 승합, 화물
- 신청방법 :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
-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10% 공제됨
- 자동차세 관련 민원안내 : 중구청 세무과 시세팀 (☎ 760-7244, 7246)
FAX : 760-7239

❖ 청소년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기존 학생들에게만 이뤄졌던 각종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의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비학생 청소년들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청소년증을 2004년 1월부터 발급해 드립니다.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 용 도 :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할인, 극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동사무소
 - 제출서류 : 동사무소에 비치된 발급신청서 1부(반명함) 2매
 - 문의전화 : 신포동사무소 ☎760-7900, 연안동사무소 ☎760-7910
신흥동사무소 ☎760-7920, 도원동사무소 ☎760-7930
율목동사무소 ☎760-7940, 동인천동사무소 ☎760-7950
북성동사무소 ☎760-7960, 송월동사무소 ☎760-7970
영종동사무소 ☎760-7980, 용유동사무소 ☎760-7990

❖ 2004년 노인대학 학생 모집

- 수강신청 : 2004. 2. 28까지
- 모집인원 : 100명 내외(선착순)
- 접수장소 :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지회 사무실 (※ 중구노인복지회관 2층)
- 신청대상 : 중구지역 거주 1944년 이전 출생자
- 교육기간 : 2004. 3. ~ 12(10개월간) / 매주 화요일 14:00~16:00
- 신청서류 : 수강신청서(지회 비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증명사진 2매
- 교육과정 : 국내외 정세, 기능습득, 노인건강관리, 기타
- 문의전화 : (사)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지회 (☎ 772-2579)

❖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훈련생 모집”

- 접수기간 : 현재접수중(1차접수 - 1. 30까지 : 선착순모집)
- 대 상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 (고용보험 1회 납부자도 가능)
- 과 목 : 제과제빵(5개월 과정)
- 훈련기간 : 2004. 2. 9 ~ 7. 8
- 대 상 : 여성가장(본인이 세대주인 여성)
- 과 목 : 의류수선원(5개월 과정)
- 훈련기간 : 2004. 2. 16 ~ 7. 15
- 무료특강 안내
 - 컴퓨터 특강(인터넷활용) : 화,수,목 10:00~12:00 / 2. 3~5까지 / 누구나 참여 가능
 - 계절음식만들기(약선요리) : 토 / 10:00~12:00 / 2. 14 / 재료비 1만원
- 문의전화 :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 881-6060~2 / 상담직통전화 ☎ 888-6063)

❖ 용기종기공부방 신입생 모집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용기종기공부방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방법 : 선착순(소수정원제)
- 대 상 : 초등학교 1 ~ 6학년
- 이용시간(방학기간) : 14:00 ~ 17:30(월~금)
 - 1~2학년 오후 2:00~4:30
 - 3~6학년 오후 3:30~5:30
- 교 육 비 : 1~2학년 월 43,000원 / 3~6학년 월 38,000원
-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가정에게는 무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 (☎ 766-0981)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투표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주도해 나갈 참신하고 사명감 있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04. 2. 30일까지
- **지원자격** :
 - 중구지역 거주자로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 여성 인사 및 청·장년층 우대
- **지원방법**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763-6646)를 방문하여 지원서에 의거 지원
 - ※ 준비물 : 사진1매(3cm×4cm)
- **투표구위원의 임무 및 대우**
 -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사무관리 및 이에 따른 각종 결정사항에 의결권 행사
 - 각종 공직선거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등 공명선거 추진 활동
 - 위원 임기는 6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및 교육 참석, 투표일 당일 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무수당·여비 등 실비 지급
- **문의** :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 763-6646)

❖ 인천의료원 한방과 무료검진 안내

인천의료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보건의료시혜를 확대 실시하여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 **기타 통증질환(두통, 요통, 견비통)**
 - 2004. 2. 2 ~ 6 / 인천광역시 주민 / (월 ~ 금)09:00~12:00
- **검진기관** :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 **문의전화** : 한방과 (☎ 580-6386) / 총무인사팀 (☎ 580-6651~5)

❖ 인천YWCA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

- **겨울방학 프로그램 (대상 : 초등학생)**
 - 5대궁궐탐방(전문 강사선생님과 함께 5대 궁궐 탐방)
 - 1. 30(금) / 9:00~17:00 / 경복궁·창덕궁·덕수궁(궁중유물전시관)
 - 유리로만드는 세상 미술관이 된 학교(유리제품 만드는 과정을 체험, 운동장과 교실에 전시된 미술작품 감상)
 - 2. 6(금) / 9:00~17:00 / 김포그라스빌 전시관·심은미술관
- **문의전화** : 인천YWCA (☎ 425-0524) www.ywcaic.or.kr

❖ 2004년 인천국립직업전문학교 국비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기간 및 전형일(전형방법)**
 - 1년 과정/접수기간 : 1.2~2.18/전형일(방법) : 2.20(서류/면접)
 - 6월 과정/접수기간 : 1.2~2.23/전형일(방법) : 2.24(서류/면접)
-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2매 부착)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체장애인은 해당증명서 1부
- **입학자격**
 - 학력 : 제한없음 연령 : 15세 이상 남 여
 - ※단, 병역미필자는 교육훈련기간중 군 입영 연기가 가능한 자
- **원서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학교 홈페이지 접수(vt-inccheon.hrdkorea.or.kr)
-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가부담(무료)
 - 매월훈련수당지급(우선선정직종에 한함) : 일반지원자 20만원, 고교재학생 10만원
 - 매월 교통비 지급(통학생에 한하여 5만원)
 - 원룸식 기숙사 및 식사 무료제공
 - 국가기술응시자격 부여
 - 전원취업알선 및 각종장학금 지급
- **문의전화** : 인천국립직업전문학교 (☎ 450-0310~19, 자세한 문의상담중)

❖ 장애인 무료컴퓨터 교실 운영

- **개 강 일** : 2004. 2. 2 ~ 28
- **대 상** :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 **준비서류** : 장애인수첩,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문의전화** : (사)인천시 장애인정보화협회중구지회 (☎ 760-0076)

❖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신·편입생 모집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4. 2. 29까지
- **입학자격**
 - 신입생 : 중학교 졸업(예정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 편입생 : 고등학교 중퇴생(인문계, 실업계, 방송고)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남) (☎ 770-4741)
 -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여) (☎ 810-6317)

❖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04. 1. 26 ~ 2. 13 (3주간)
- **활동시기** : 3월 ~ 11월(3개월 단위 고용)
- **활동내용** : 뒷골목 청소등 주민불편사항 및 환경정비
- **신청자격** : 만60세이상으로 노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노인. 단, 신청인이 많을 경우 저소득자 우선 채용
- **모집인원** : 60명 (각동 6명)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노인복지담당 직원)
- **임금수준** : 일 15,000원(4시간근무) / 월30만원 수준
- **문 의** : 거주지 동사무소 및 중구청 보건복지과 (☎ 760-7325)

❖ 중구보건소와 중구노인복지회관은 함께 있습니다

- 중구보건소(1층)와 중구노인복지회관(2층)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 노인건강대학 - 월 1회
 - 이동건강교실 - 월 1회
 - 당 뇨 교 실 - 9월/4주간 주 1회
 - 고 혈 압 교 실 - 10월/4주간 주 1회
- **문의전화** : 중구보건소 통합보건실 (☎ 760-7662)
중구노인복지회관 (☎ 760-7328)

❖ 전기안전점검 안내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지역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전여부를 무료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점검지역** : 북성동, 선리동, 송월동
- **점검기간** : 2004. 2. 2 ~ 29

❖ 민원 사무처리 현황

민원사무명	처 리 기 관				
	구청(시내)	동사무소	경제자유구역청(영종·용유)	영종용유출장소	운서·무의지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	.FAX	●	FAX	FAX
지방세 납세증명	●		●		
과오납금 반환요청	●		●		
취득신고	●		●		
지방세 이의신청	●		접수		
납기연기신청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접수		
지방세 징수유예신청	●		●		
농업소득비과세(감면)면제신청	●		●		
건축물대장	●	FAX	●	FAX	FAX
호적등·초본	●	FAX		●	FAX
제적 등·초본	●			●	
농지원부	●	FAX	●(소무의 제외)	FAX	FAX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FAX		FAX	FAX
지적도·임야도	●	FAX		FAX	FAX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소무의 제외)		

- ※ 무인발급기 민원처리 : 구청 및 운서지소 (2003. 12. 29일부터)
- 세목별과세증명서(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제세, 담배소비세)
- FAX민원(전국)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시세완납증명(자동차)
- 직접발급 - 단) 시내 동사무소에서는 관할 종토세, 재산세만 직접발급하고 영종용유동에서는 FAX만 가능.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지난해 26일 구청회의실에서 새벽거리 깨끗하게 정비하던 80여명의 동료 미화원들과 퇴임자들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든 직장을

퇴임하는 환경미화원 5명을 초청하여 정년퇴임식 및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북성동주민자치센터 “어린이교실” 운영



1월 5일부터 시작된 겨울방학특강 “어린이교실”로 북성동 주민자치센터가 매일 북적된다. 동화구연, 종이접기, 논술·글짓기, 바둑교실에 수강신청한 87명의 어린이들이 시간에 맞춰 등교하는 학생처럼 방학을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새로운 배움의 세계로 등교한다. 특히 종이접기는 매시간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스스로의 손재주에 감탄해하며 자신감도 두배로 키워간다.

송북새마을금고

“사랑의 줌도리 운동”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송북새마을금고(이사장 노경수)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사랑의 줌도리 운동”의 일환으로 모아왔던 성금과 새마을 금고 자체 기부금으로 쌀 20kg 25포를 구입 율목동 관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세대, 모·부자가정, 노인정에 전달했다.

송월동주민자치위원회

불우이웃 돕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난 5일 송월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규영)는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백미(10kg) 50포를 전달했다.

새해 설맞이 불우이웃 돕기



중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소용)는 지난해 11월26일 일일차집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20kg 백미 30포를 불우이웃 30세대에게 전달하는 설 명절맞이 “훈훈한 정”을 나눴다.



대한적십자인천지사 중구지구협의회(회장 홍희재)와 종합어시장상인연합회(대표 이승부)에서는 새해 설날을 맞아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 31가구를 방문하여 성금과 쌀을 전달하고 노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속의 수필

사랑의 만찬

작가 송 벽 주

램프의 등피를 닦아
황홀한 주홍의 빛을 밝힙니다.

치마폭에 감겨오던
붉은 밤의 변주
깃불에 흰꽃이 피면
첫사랑 스물의 봄도 함께 건너옵니다.

초록색 저고리
빨강치마 꿈결처럼 달려가는 이 저녁
어제도
오늘도
하루인 양 추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의 물이
어둠을 뚫고 나와
당신의 이마를 비추면
여전히 나는
당신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좋은 사람 있음 소개 시켜줘!

이런 사람 어디 없나요?
애뜻한 눈빛으로 날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

하루의 일상에 지치고 돌아와
내뻗는 날숨에조차 찌뚱이 묻어 나올 때
포근한 눈길로 날 설레게 할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없나요?
촉촉한 음성으로 내맘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삭막한 삶의 전장속 좌절하고 깨져
끝없는 나락 속으로 숨고만 싶어질 때
다정한 말 한마디로 날 위로해줄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없나요?
따뜻한 손길로 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더하고 덜함이 없는, 다같이 힘든 시간속
자신보단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그런사람

이런 사람 어디 없나요?
순수한 가슴으로 있는 그대로의 날 사랑해줄 사람

살아온 날보단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기에
두렵고 막막한 내게 빛을 주는, 힘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앞에 당신이면 안 돼냐구요!

■ 김윤희 (북성동1가 98)

보고 싶은 언니

언니, 가을이 한 없이 깊어가더니 어느새 겨울이네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지.
나는 멀정한 부모형제 두고 고생하는게 싫어서 날마다 울었어 날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를 생각하느라 수업 태도도 안 좋았고, 다가오는 친구들도 마다했고 그냥 지쳐만 있었어.

그 황금같은 여고시절, 학교생활도 힘들고 지치고... 언니가 적극 추천해서 합창대회때 지
휘 할 때도 나는 울었고 축제때 참가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울었고 학급 부반장을 하면서도 나
는 울고 또 아팠지. 언니는 내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동기를 주려고 이 행사 저 행사
에도 적극 추천해서 나를 앞에 세워 주곤 했지만 언니, 나는 그냥 그 때 참 힘들고 모든게 귀찮
았다.

일탈을 꿈꾸며 고향으로 돌아가버리면 언니는 기숙사 내 옷장에 빼곡이 쪽지를 꽂아 놓았
었지.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먼저 언니를 찾아 오라고...

근데 언니도 알지?

내가 못되먹은 구석이 있어서 언니도 싫어 했었잖아. 그래도 언니는 늘 내곁에 있어주었지.
겨울방학때 벽산 바닷가에 놀러 갔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언니도 기억나나? 바닷에 자
같이 깔리고 탁자마다 촛불이 팔랑이던 움막같은 카페말야. 벽에는 온통 연인들이 다녀갔노
라고 흔적들을 남겨놓고 우리도 낙서 조금 남겨 놓았었나?

언니는 졸업하고도 참 열심히 살았어. 친구들에게도 무척 잘 했고...

산에 들어가 새소리 들으며 글 쓰고 싶다던 언니는 간호사 공부를 하고는 병원에서 환자보
고 살 수는 없다며 아동복지회로 들어가고 장애가 심한 아이들 돌보며 예쁘다고 사진 찍어서
내게 보내 주곤 했었는데...

어쩌다 전화 한번하면 "애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난 네 꿈만 꾀도 좋은 일이 생기
는데 웬일이니 목소리를 다 들려주고"하던 언니의 카랑하던 경상도 말투의 목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듯 해.

나는 언니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정 주는 일에 왜 그렇게 인색 했을까?

결국 언니에게 못되게 굴다, 결혼식에도 안 갔잖아.

"너 쉬는 날이다. 일부러 읊겼어야, 꼭 올꺼지?"했었는데...

난 그냥 가기 싫어서, 언니 결혼식을 보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았지.

훗날 충청도 어데 산다는 말만 들었을뿐 언니를 못보고 지나간 날이 십 수년이다.

근데 언니, 내게 아끼없이 정 주던 언니는 나를 잊었나 본데, 못되게 굴던 나는 세월이 흐를
수록 언니가 보고 싶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어젯밤 꿈에 언니가 보이더라. 여전히 긴 머리에 예쁜 옷을 입고 언니는 십 수년전 그때처
럼 그렇게 웃고 있더라. 언니도 혹여 내가 보고 싶나? 그래서 먼 길 걸어 내꿈에까지 찾아왔
나? 언니도 나 잊지 않았다고 말해 주려고 왔었어?

언니 보고싶다. 그리고 학창시절 정말 고마웠었다. 그런데 못되게 구는것으로도 모자라서
결혼식조차 찾아가지 않아서 정말 미안다. 정말이다.

언제 언니 얼굴보면서 애기하고 싶다.

그런 날이 찾아 올 때까지 나 언니 잊지 않고 있을게.

그 기회조차도 언니가 내게 베풀어 줘야 할 것 같다.

언니 연말연시 행복하고 내년에도 언니에게 꼭 알맞은 복이 찾아들길 빈다. 안녕!!

■ 윤순미 (송월동3가 11)



☞ 「인천중구소식」 투고 안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가 「인천 중구소식」을 키워줍니다.
생활속의 수필, 의견 등 구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마감은
매월 15일 이며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곳 : 우편 (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1가 9 중구청 (문화
공보실) 「인천 중구소식」담당자 앞

■문의 : ☎ 760 - 7122, FAX : 760 - 7129

※ 「인천 중구소식」지는 구 홈페이지(junggu.incheon.kr → 열린행정 →
인천중구소식)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월 미 관 광 특 구 활 성 화 를 위 한

월미건강달리기대회!



- ◆ 일시 : 2월 1일 09:00 ~ 12:00
- ◆ 장소 : 월미공원 및 주변지역
- ◆ 종목 : 하프코스, 10km, 5km
- ◆ 주최 : 인천광역시 중구
- ◆ 주관 :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 ◆ 문의 : 032)452-0196~8 인천/강화마라톤조직위원회
(www.incheonmarathon.co.kr)



인천시민프로축구단창단

제2차 시민주 공모

인천시민프로축구단창단을 위한
제2차 시민주 공모하고 있으니
주민께서는 축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약기간 : 2004. 1.12 ~ 2.12(30일간 토·일요일 제외)
청약방법 : 인터넷 및 한미은행 우리은행 전지점
인터넷 청약

축구단홈페이지 WWW.fcinccheon.co.kr

인천시홈페이지 www.incheon.go.kr

청약서 비치 : 인천시 군 구 민원실 및 동사무소 한미은행 및 우리은행 지점
문의전화 : 중구청 문화공보실 (☎ 760-7131)

베르너 로만트 초대감독

중구의 안녕과 발전 기원하는
2004월미산제천례봉행식

2004 갑신년 새해를 맞아 중구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힘찬 출발과 함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구정발전과 각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천례 행사를 개최합니다.

- ◆ 일 시 : 서기 2004년 2월 1일(일요일) 12:00
(단기 4337년 2월 1일(음력 1월 11일))
- ◆ 장 소 : 월미공원(정상)
- ◆ 주 관 : 인천광역시 중구
- ◆ 내 용 : 2004 새해맞이 구정 및 구민의 안녕과 발전 기원
(봉행식, 연날리기, 풍물패 놀이 등)

인천중구소식지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인천중구소식”애독자 퀴즈 당첨자 추첨이 지난 1월 14일
문화공보실에서 엄정 추첨되었다. (관내 주민 59명이 참여 4명이 오답하고 20명이 당첨)



당첨자

이영호 (신흥동1가 34-8 풍림(아)16동2번)	이주혁 (신흥1가34-8 풍림(아) 101동610호)
이현일 (관동2가 8 19/2)	차학순 (답동 8-1 로알답동맨션 102동207호)
윤인순 (송월동1가12-122 신성하이빌1동301호)	이준원 (선화동3-14 19/5)
최은애 (북성동2가 5-1 선광(아)505호)	이용근 (운서동 2748-1 풍림1차(아) 215동505호)
홍은정 (향동7가 27-107 비취라이프아파트 15동 109호)	오순희 (향동7가27 비치맨션 5동705호)
김혜자 (향동7가 27 비취맨션 5동403호)	김영주 (도원동 48-3 14/3)
김애자 (율목동 247-12 11/5 동양하이츠빌라 302호)	정근주 (신흥동3가 21 24/3)
최광일 (북성동2가 2-4)	노정남 (송학동3가 2-67 동경빌라 A동 201호)
김미화 (운서동 풍림(아)2차 204동506호)	심윤식 (신흥동3가 현대(아) 106동2404동)
김경자 (송월동1가12-122신성하이빌 1동401호)	박윤정 (선화동10-11 뉴월드 그린빌라 6동201동)

※인천중구소식 애독자퀴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iTV 경인방송

열전! 가수왕 예선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예심일시 : 2004년 2월 10일 오후 2시

예심참가자 신청 및 접수 : 2004년 1월 ~ 2월 9일 15:00까지

접 수 처 : 문화공보실 및 관할동사무소

장 소 : 중구청 회의실

문의전화 : 중구청 문화공보실 (☎ 760-7130)



본 '인천 중구소식'지는 통·반장님들이 각 가정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어 통·반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